반달가슴곰 인공수정 출산 세계 최초 성공

구례 종복기술원 지난해 4마리 시도 올 2월 2마리 출산
도전 3년만에…8~9월 자연 적응 훈련 후 가을 방사

구례군에 있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종복원기술원이 세계 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수정 출산에 성공했다.

국내 연구진들은 이번 인공수정 성공으로 반달가슴곰들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 건강하게 자연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구례 종복원기술원 증식장에 있는 반달가슴곰 어미 2마리(RF-04, CF-38)가 올해 2월에 각각 출산한 새끼 2마리의 유전자를 최근 분석한 결과,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개체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CF-38이 출산한 새끼 1마리는 올해 5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폐사했다고 종복원기술원은 덧붙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7월 증식장에 있는 4마리(RF-04, CF-38, CF-37, RF-109)의 암컷 곰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을 시도했다. 올해 2월 태어난 새끼들이 자연 교미로 태어난 것인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것인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인공증식으로 태어났음을 최종 확인했다. 이는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곰은 생리·환경적, 그리고 영양상태에 따라 최적 조건이 됐을 때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지연착상'을 거친다. 또한 동면을 하면서 새끼를 출산하기 때문에 새끼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영양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산 또는 유산 가능성이 높아 인공 증식에 어려움이 있다.

세계적 희귀종인 팬더의 경우 중국 등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십년 동안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률이 25% 미만에 불과하며 지난 2006년에야 최초로 인공수정을 성공했다. 미국의 대표적 동물연구기관인 신시내티동물원과 스미소니언연구소에서도 각각 북극곰과 말레이곰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반달곰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3년 만에 성공시켰다.

2020년까지 '최소 존속개체군'(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 자연 번식이 가능한 최소 개체 수) 50마리를 복원한다는 계획이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4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하지만 몇몇 우수한 개체만 새끼를 낳고 있어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새끼 1마리는 오는 8~9월께 증식장 인근의 자연적응훈련장으로 옮겨 야생 적응 훈련을 받은 후 올해 가을에 방사될 예정이다.

반달곰 보호단체인 (사)반달곰친구들 윤주옥 이사는 환경부 차원에서 인간과 반달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31년전 그 뜨거운 이름 '6·10민주항쟁'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10일 광주시민들이 동구 금남공원에서 5·18민주광장까지 민주시민 행진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18	달뜸	03:20
해짐	19:47	달짐	16:48

구례·곡성·광양 우박 조심

바람이 강하게 부니 시설물 관리 유의하세요.

광 주	차차흐려져 비	19/24	보 성	차차흐려져 비	17/22
목 포	차차흐려져 비	19/23	순 천	차차흐려져 비	18/23
여 수	차차흐려져 비	17/22	영 광	차차흐려져 비	18/23
나 주	차차흐려져 비	18/22	진 도	차차흐려져 비	18/23
완 도	차차흐려져 비	18/23	전 주	차차흐려져 비	18/24
구 례	차차흐려져 비	17/24	군 산	차차흐려져 비	18/23
강 진	차차흐려져 비	18/23	남 원	차차흐려져 비	17/23
해 남	차차흐려져 비	18/24	흑산도	차차흐려져 비	17/22
장 성	차차흐려져 비	17/2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	북~북동	1.5~2.5	북서~북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5	북서~북	1.0~2.0
	먼바다(동)	북동~동	2.0~4.0	북서~북	1.5~3.0
	먼바다(서)	북동~동	2.0~4.0	북서~북	1.5~3.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17	11:50
	17:31	--:--
여수	00:44	06:58
	13:03	19:34

◇ 생활지수

식중독	위험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좋음

◇ 주간 날씨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8/27	17/29	18/29	18/29	18/29	19/29	19/29

한 풀 꺾인 더위…오후 돌풍·소나기

11일 오후 소나기가 쏟아지고 전남 동부권에는 우박까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대기 상·하층의 온도 차로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10일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5~30㎜안팎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전남 동부 지역인 구례, 곡성, 광양 등 일부지역에는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부터 내린 비는 밤 늦게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다.

13일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평년(낮 최고기온 24~28도) 기온과 비슷해 주중에는 가끔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까지 원활한 대기 확산 등으로 광주·전남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

정부 공동조사단 출범…12명 10월까지 조사 활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이 출범했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동조사단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등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조사·군 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규명하는 활동을 펼친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등을 지원한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를 비롯한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 접수를 받는다. 12일부터는 여가부·인권위·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농성지하차도 제한속도 40㎞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 서구청은 "11일부터 서구 농성지하차도 공사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사구간 내에 속도제한 표지 16개, 예고 표지 5개 노면 표시 등을 보강했다.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했던 농성지하차도는 경사 완화를 위한 구조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9월까지 농성지하차도를 단계별로 폐쇄하고, 2020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회사 근처 식당 가다 다쳐도 산재 인정

고용부 오늘부터

앞으로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 지정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규정상 노동자 식사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박진표 기자 lucky@